

2022 열린 인생 17.

'안식!' 마음의 짐의 해결(노동을 위한 쉼인가? 쉼을 위한 노동인가?)

[마태복음 11:28-30]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1. 인생의 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눈에 비친 사람의 모습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표현 중 주목할 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이다. 무거운 짐은 '과중의 상태'를 말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용량의 짐을 '과중'이라고 한다. 원래의 뜻은 '영적 근심'을 말한다. '영적 근심'이란 보여지는 근심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근심'을 말한다. 마음이 담아낼 수 없는 근심이 '과중'된 상태를 말한다. 짐이 용량을 초과해 과중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멈춘다'는 것이다. 하중에 계속 짓눌려 있는 상태가 된다. 생각이 근심의 높이 되어 계속 침체되어 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분별력이 없어지고,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되지 않는다. 버려야 할 생각과 감정이 구분되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간다. 청소를 할 수 없는 복잡한 방을 생각해 보라. 청소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멈춘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근심이 짐이 되어 쌓여 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

[잠언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서다. 지혜는 승리하는 인생의 구체적인 삶이다. 그래서 지혜는 분별력이다. 분별력은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좋은 것은 배우고 받아들이고 흡수한다. 나쁜 것은 차단하고 잘라내며, 버려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것은 마음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마음은 어떤 곳인가? 감정, 생각, 뜻이 생겨나는 곳이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이 만들어지는 곳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멈추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지혜의 비결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마음에 차단벽을 세우는 것이 지키는 것인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분별'의 센서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분별력은 '기준'이 있다는 뜻이다. 기준은 '말씀'이며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삶을 말한다.

이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말 것에 대한 센서가 작동되고 있다. 말씀의 센서가 작동되지 않았던 첫 번째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다. 결국 사탄의 목적은 아담의 분별력을 흐리는 것이었다.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가?'

아담의 문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혹한다. 결국 아담은 어느 순간에 생각의 문을 열어 버린 것이다. 그렇게 되니 결국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마귀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했다. 버리고 차단하고 끊어버려야 할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에 쌓아 두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먹어 버린 것이다.

마찬가지다. 오늘 내 마음(생각과 감정)이 멈춰 버린 이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진리의 경계선이 희미해진 상태의 결과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나타난다.

2.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다. 그 짐이 무엇인가? '죄'의 문제다. 어떤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결국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문제의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죄'의 문제로 귀결된다.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 간 상태이다. 그 틈을 통해 죄가 유입되면 그 간격은 더 커진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과중 된 죄의 짐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초대하셨다.

3. 마음의 짐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

(1)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쉼을 주신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예수님의 초대는 너무나 명확하다. 대상이 명확하다. 마음의 짐이 무거운 자들을 오라고 하신다. 마음의 짐에 짓눌려 있는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이다. '수고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음의 짐에 짓눌려 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과 사랑이다. 쉬게 하신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진정한 회복은 '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쉼'

쉼의 뜻은 '멈춘다, 정지하다'다. 예수님께로 가야 멈출 수 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멈추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멈춤은 '사형' 선고와 같다. 본디 인간은 'doing'의 존재가 아니다. 행위의 인간은 결코 자신을 찾을 수 없다.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멈추지 않기 때문에 '급발진'한다.

'급발진'(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멈추지 않게 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급발진'의 상태다. 급발진은 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달리는 것이다. 자동차를 망가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급발진'이다.

사전적 정의 - 운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차량이 급가속하는 현상. 스로틀을 끝까지 개방한 것(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은 것)처럼 엔진 RPM이 급격히 상승하며 차량이 돌진하는 증상을 말한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면 멈춰야 한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주님께 가는 것이 멈추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안에서 멈춤은 생명으로의 출발을 말한다. 주님 안에서 쉼은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찾는 일이다. 말씀이 신 예수님께 비추어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된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처방을 받고 회복이 되는 과정이 쉽다.

시간의 영역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움켜잡이 아니라 내줌이,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목표다.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 삶은 망가지고 만다.

성경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에 초점을 둔다.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시간이다. 거룩한 시간이 내 삶에 건축될 때 공간은 변화된다. 그래서 헤셀은 안식을 '시간의 건축술'이라고 했다. 헤셀은 창세기에 단 한 번 사용된 '거룩'(카도쉬)이라는 단어가 사물이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일에 사용되었다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은 영원한 쉼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이다. 마음의 짐이 무거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안식이시다. 하나님이 안식이시다.

(2) 회복된 나는 '분별'의 눈을 갖는다.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

[마태복음 11:29-30]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가면 마음의 짐이 문제인지, 마음의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내 능력이 문제인지를 알게 된다.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 법은 '멍에'를 메는 것이다.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소와 같은 가축에게 멍에를 씌워서 짐을 운반하게 한다. (멍에를 메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가르치신다. 그렇게 하면 짐이 있어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다. 주님께 주도권(로드십)을 드린 제자의 삶에는 안식이 있다. 고단해도 피곤하지 않다. 독수리가 비상할 때 받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멍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을 말한다. 복잡하지 않고 분명해진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분별력 지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에게 초점을 둔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온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과 회복이 있다.

(3) 짐이 아니라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변해야 한다.

성경에서의 변화는 거룩이다. 거룩은 안식일의 개념처럼 시간이 변하는 것이다. 거룩한 시간이 되면 거룩한 공간이 된다. 하늘은 시간이며 땅은 공간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시간으로 땅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다.

[디모데전서 4: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이 실재가 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다. 성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이 결국 내 공간을 변화시킨다. (마음의 공간이 변해야 실제 환경이 변화하는 영적 원리가 적용되는 삶)